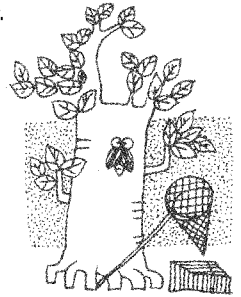


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 (WED)

세계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인간환경에 대한 스톡홀름 회의의 개막을 기념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UN총회에서 결정되었다. 같은 날 UN총회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탄생하였다.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세계 환경의 날은 UN이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 의식을 일깨우고 정치적 관심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되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이날 개최하고 있다.

2003년 세계환경의 날의 주제는 「물 - 20억 인구의 갈망!」이다. 이 주제는 우리 각자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이 주제는 UN의 2003 세계 물의 해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어졌다.



지구의 날 EarthDay Network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참여를 통해 지구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뜻을 모으고 표현하는 행사로서 전세계 시민들의 희망의 축제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넬슨(Gaylord Nelson)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Denis Hayes)를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추진된 행사로 출발하였다. 2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동참하여 집회와 문화행사 등이 열린 최초의 「지구의 날」행사는 근대환경운동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지구의 날은 점점 퍼져 나가서, 전 세계에 걸쳐 시위운동이나 나무심기, 지구박람회, 강 깨끗이 하기, 문화 행사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한 의안 제출권 등을 포함한 수 천 가지의 활동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각 나라의 캠페인을 통해 많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참가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의 회담은 전례 없이 많은 나라들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나 동식물종의 멸종과 같은 환경문제들을 발표했다.

이제 지구의 날은 많은 나라에서 연중행사로 자리잡았고, 이 날은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결집력을 새로이 다질 수 있는 기회이고, 일반 대중들에게 다시금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수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에서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생명”을 주제로 지구의 날이 개최되었고 매년 민간단체들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세계흐름과 같이 “차없는 거리” 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모든 환경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